

대구 · 경북

「미리 알아보는 기상기후정보」 7월호



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2019년 6월 25일 10시 발표

7월의 기상전망

- 기 온 :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 강수량 :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전반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고, 후반에는 대기불안정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1주 (7.1~7.7.)	저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22.3~23.9℃)과 비슷하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18.2~74.4mm)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2주 (7.8~7.14)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거나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22.6~24.4℃)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40.8~67.4mm)과 비슷하겠습니다.
3주 (7.15~7.21)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23.6~25.4℃)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32.4~70.4mm)과 비슷하겠습니다.
4주 (7.22~7.28)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24.5~26.3℃)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15.1~72.4mm)과 비슷하겠습니다.

※ 평년 : 1981 ~ 2010년

7월의 대표 기상현상

■ 폭염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을 기록할 때를 의미함. 폭염특보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각각 33℃,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됨. 폭염은 일반적으로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과 한랭 습윤한 오호츠크해 기단의 전선 형성에 의한 장마 현상 후,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을 강하게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발생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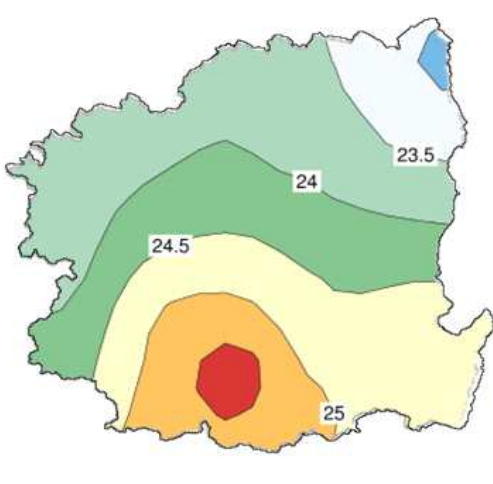
폭염에 의한 피해는 열사병을 비롯한 온열질환에 의한 피해와 축산업 및 양식업 등 각종 산업현장에서 폐사에 의한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기상청에서는 이러한 사회 피해를 줄이고자 기존의 기상 예보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폭염 영향예보' 를 시행하고 있음.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꾸준한 준비를 해 왔으며 2019년 6월 1일부터 정규 영향예보를 시행하고 있음.

7월의 대구 · 경북 지점별 평년 기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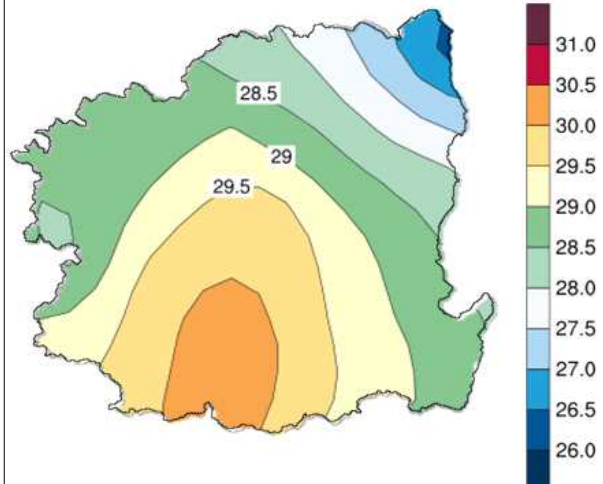
■ 지점별 기후 평년값 및 분포도

※ 안동은 1983년부터 관측 : 최댓값 : 최솟값 (단위 : 기온 °C, 강수량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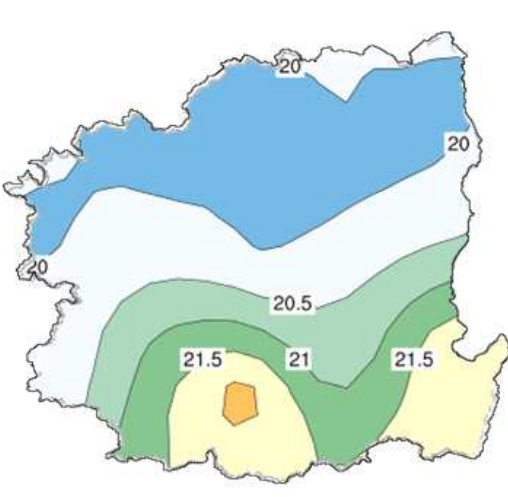
구분	대구	안동	울진	포항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영천
평균기온	25.8	24.3	22.8	24.9	23.8	23.8	23.7	24.5	24.9	24.6
최고기온	30.3	29.0	26.3	28.7	28.6	28.6	28.1	29.9	29.8	29.5
최저기온	22.3	20.6	19.9	22.0	19.8	20.0	20.2	20.0	20.9	20.6
강수량	224.0	244.3	186.8	203.2	303.6	308.7	189.7	231.2	237.9	2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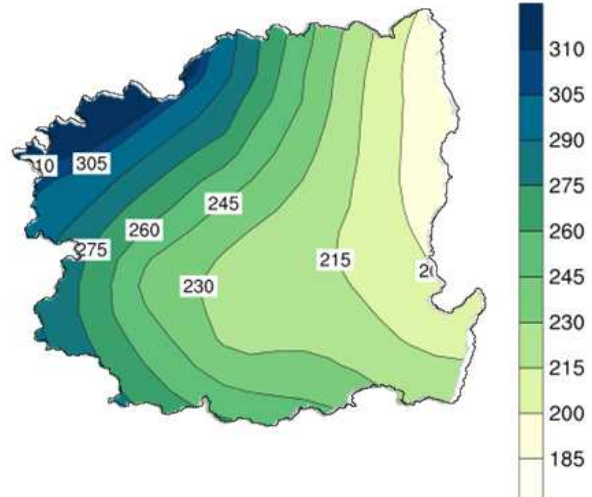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 대구 · 경북 7월 평균 기상현상일수

※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을 기록한 일수 (단위 : 일)

구분	대구	안동	울진	포항	영주	문경	의성	영천	봉화	구미	울릉도
폭염	9.2	4.2	2.3	6.9	3.2	3.8	7.1	7.4	1.6	6.5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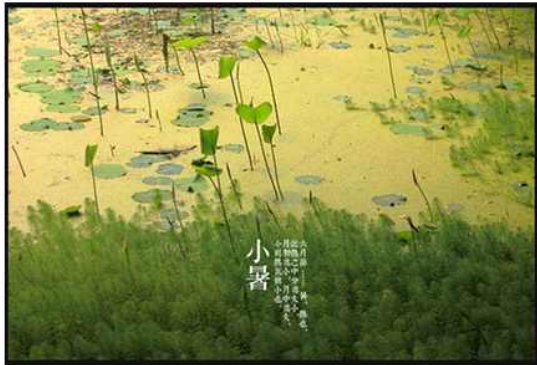
7월 기후 극값

구분	대구	울진	안동	포항	영주	구미	울릉도	
기온 (℃)	일평균 기온 최고	33.1 (2018.07.26)	32.2 (1994.07.14)	32.0 (2018.07.24)	32.7 (2017.07.21)	30.0 (2018.07.26)	32.5 (2018.07.27)	30.5 (2018.07.23)
	일최고 기온 최고	39.7 (1942.07.28)	37.1 (2017.07.21)	38.9 (2018.07.27)	38.6 (2017.07.13)	37.5 (2018.07.24)	37.9 (2018.07.27)	34.6 (1992.07.29)
	일최저 기온 최저	11.3 (1913.07.09)	11.9 (1976.07.05)	11.8 (1976.07.05)	10.8 (1953.07.01)	10.8 (1996.07.09)	12.7 (1998.07.30)	12.5 (1949.07.01)
강수량 (mm)	일 강수량 최고	203.2 (1948.07.30)	144.5 (2008.07.25)	170.7 (2000.07.23)	151.6 (1970.07.05)	184.2 (1988.07.20)	135.0 (2006.07.10)	170.5 (1963.07.05)
풍속 (m/s)	일최대 풍속 최고	18.7 (1940.07.23)	27.8 (1987.07.16)	11.7 (1989.07.20)	29.3 (1954.07.11)	11.6 (2007.07.29)	11.5 (1983.07.29)	37.5 (1957.07.07)
	일최대 순간풍속 최고	30.0 (1985.07.17)	34.2 (1987.07.16)	22.8 (1987.07.16)	30.4 (1987.07.16)	23.1 (2007.07.29)	17.0 (2001.07.30)	42.5 (1957.07.07)

※ 일 최심 신적설 : 00~24시 중 새로 내려 쌓인 눈의 최대 깊이
일 최심 적설 : 내려 쌓인 기간에 관계없이 관측 시에 실제 지면에 쌓인 눈의 깊이

이 달의 절기

소서(小暑)



24절기 중 열한 번째로, 태양의 황경(黃經)이 105도에 위치하고, '작은 더위'라는 의미처럼 이 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의미.

- 시기 : 양력은 7월 5일 경, 음력은 6월
- 특징 : 하지 무렵에 모내기를 끝낸 모들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로, 논매기를 하고, 가을보리를 베어낸 자리에 콩이나 팥, 조 등을 심어 이모작을 하기도 함.
- 속담 : 소서가 넘으면 새 각시도 모 심는다
→ 소서 전에 보통 모내기를 마치는데, 소서가 지난 이후에 하는 모내기는 늦는 편이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쳐 모내기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

대서(大暑)



24절기 중 열두 번째로 태양의 황경이 대략 120도 지점을 통과하고, 이 시기는 대개 중복(中伏) 때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한 때임.

- 시기 : 양력 7월 23일 경, 음력 6월
- 특징 : 중복 무렵일 경우가 많고 장마전선이 늦게 까지 한반도에 남아 있으면 큰 비가 내리기도 하며, 이른바 불볕더위 등의 강한 폭염이 발생함. 논밭의 김매기, 논밭두렁의 잡초 베기, 퇴비장만 등과 같은 농작물 관리가 바쁘게 이루어짐.
- 속담 : 삼복지간(三伏之間)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
→ 삼복 기간에는 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몸의 기력이 쉽게 약해지고,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게 느껴질 만큼 사소한 일도 힘들어진다는 의미.

생활 속 날씨 이야기

Q 폭염 영향예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활용될 수 있나요?

A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재해 리스크 경감을 도모하고, 방재업무의 실효적 지원을 위해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기상법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제②항’을 근거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 예보체계 내에서 폭염 영향예보를 접목하여 특보와 연계한 지역별 위험수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으로 구분하여 고려한 폭염 영향과 전망을 제공하고 있음.

사회 각 분야별 위험 및 영향수준의 연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각 부처와 공유하고 사전협의를 통한 영향예보 생산을 추진하고 있음. ‘보건’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축산업’, ‘농업’ 부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수산 양식’ 부분에서는 해양수산부, ‘산업’ 부분에서는 고용노동부, ‘교통’ 부분에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조를 통하여 영향예보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받고 있음.

폭염 관련 방재업무의 실효적 지원과 예보서비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 육상예보 구역 중 특보구역에, 2019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공되며 기상청 본청 및 지방청 예보관에 의해 생산됨. 본청에서는 폭염 위험수준에 따른 폭염전망 등 전국단위의 개황을 생산하고, 지방청에서는 폭염 피해사례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한 지역별 영향정보를 생산·제공함. 전일 11시 30분을 기준으로 발표되며 폭염의 영향과 전망을 픽토그램(pictogram, 사물과 시설 및 행동 등을 상징화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시각 디자인) 위주로 정보 제공되고, 정보문 및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되고 있음.

폭염 영향예보는 재해 예방과 대비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기상재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 저감에 기여하고, 신뢰성 있는 예보와 사회·경제적 영향이 고려된 영향예보 생산·제공으로 국민중심의 보다 나은 기상예보서비스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폭염 영향예보 통보 예시(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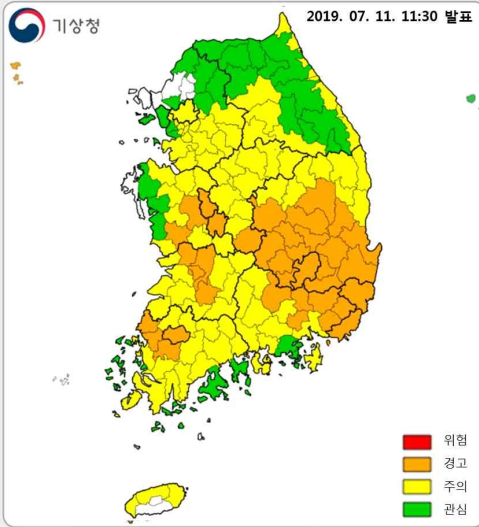
폭염 영향예보(제 7-7호)

기상청, 총괄예보관 홍길동
2019년 7월 11일 11시 30분 발표

폭염 영향 전망

- 중부지방은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질환 관리와 농·축산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 바람
- 고온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건, 축산업, 농업, 산업, 수산양식 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추가 피해가 없도록 유의 바람

폭염 영향 수준 분포 (보건 분야)



폭염 피해 현황

- 온열질환자(질병관리본부, ~7.9)**
34명 (사망자 -명)
- 가축피해(농림축산식품부, ~7.10)**
177천마리
(가금류 174, 돼지 1, 소 등 2)
- 농작물피해(농림축산식품부, ~7.10)**
-ha
(과수 -, 채소 -, 특작 등 -)
- 어패류피해(해양수산부, ~7.10)**
어류 -만마리, 패류 -ha 등
- 기타(언론, 보도 자료 등)**
- 행안부 폭염 예방활동 철저 지시
- 지자체 무더위 쉼터 점검

(전국 기준, 잠정집계)

폭염 전망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5°C(평년대비 2~3 °C 높음)내외로 오르고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음

영향 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요령

위험

해당지역 대부분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고 곳곳에 극심한 피해가 나타나 장시간 영향이 예상되는 수준

경고

해당지역 곳곳에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어 단시간 영향이 예상되는 수준

주의

해당 지역 일부에서 다소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관심

일상적인 활동에서 조금 불편한 수준

보건

- 위험**
- 노약자 및 어린이 각별히 유의
- 낮 동안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 및 주기적 휴식
- 충분한 수분 섭취

축산업

- 위험**
- 강제송풍, 물분무 장치 가동 (닭 특히 취약)
- 산란계의 산란율이 현저히 감소하니 알송 보증
- 축사 환기 필요

수산양식

- 위험**
- 경고**
- 주의**
- 차광막 설치 요망

농업

- 위험**
- 경고**
-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 실시
- 농작업시 오전·오후 1회 이상 휴식

산업*

- 위험**
- 낮시간에는 작업 중단 및 휴식
-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 착용
- 작업 중 충분한 수분 섭취

교통

- 위험**
- 경고**
- 엔진 과열 방지를 위해 정시간 연속주행 금지
- 엔진 과열 방지를 위해 냉각수 사전 점검

* 실내·외 근로자 기준

※ 영향예보 발표 구역의 일부 지점 기온예보는 영향예보 위험수준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야별 폭염 영향이 미비한 경우에는 회색 음영표시를 하였습니다.
 ※ 발표 중인 폭염 특보 현황 및 상세한 예보는 기상청 누리집(날씨누리)(<http://www.weather.go.kr>), 방재기상정보시스템(<http://afso.kma.go.kr>)을 참고하고 예보 수신기관의 연락처 변경 시 기상청(02-***-****)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 영향예보 분야별 대응요령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사전 협의되었습니다.